



# 무독성 수지 본격 제품화

신기술로 시장에서 승부



우리켄테크(주) 대표이사 김 권 ▶

흔히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내분비계 교란 물질(Endocrine Disruptors)은 인간의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인간 육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축적되어 유전현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환경호르몬을 포함한 독성물질이 없는 플라스틱 소재가 우리켄테크(주)(대표이사 김권)에 의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1998년 2월 2일 창립한 이 회사는 무독성 수지라는 특화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벤처정신이 살아 있는 회사이다.

본사는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고 공장은 안성 가울지방산업단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벤처기업답게 안성 공장내에 기술팀을 중심으로 한 연구원들과 경희대학교 내에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두 개의 연구팀을 가동 중에 있다. 1998년 설립 이후 무독성 플라스틱 소재의 개발 및 사업화, 환경호르몬에 대한 total solution 제공, 첨단 정밀 화학제품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목표로 2000년 6월 안성공장을 가동하기 전까지 주로 연구개발 사업에 몰두, 현재 무독성 플라스틱(TECHPOL-ecology), 향기 플라스틱(TECHPOL-aroma)의 Compounding 기술과 무독성 살충제 등 정밀 화학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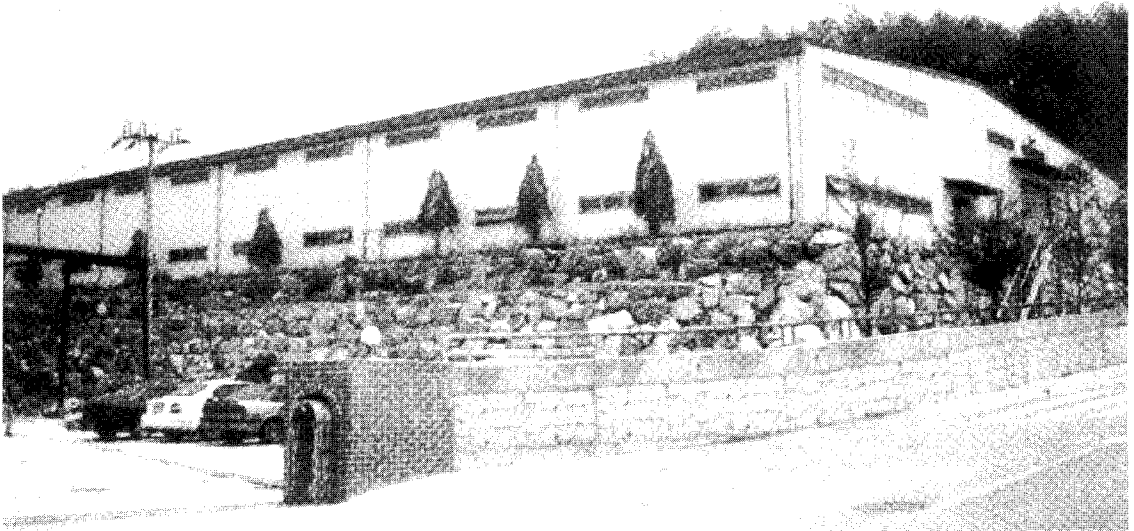
지난 6월 공장 준공 이후 월 300~500톤 규모로 본격적인 생산체제에 진입했다.

우리켄테크의 제조 공정에서의 특징은 플라스틱 소재중 안전성이 증명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을 Base Resin 으로 하여 식품에서 천연식품에서 추출한 천연 첨가제를 사용한 다는 점이다.

이 기술은 각종 유해물질의 용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산화방지 효과와 향균, 탈취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가격 면에서 기존제품보다 약 1.5~1.7배 정도 높지만 충분한 경쟁력은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병호 공장장은 "가격이 약간 높긴 하지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라



▲ 우리켄테크 (주) 공장전경

며 현재 서울우유의 우유용기, 제일제당(주)의 가공식품 포장재, (주)교원과 장난감 사업 분야에서 기술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난감 사업분야는 어린이들이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므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켄테크의 제품은 충분한 시장경쟁력으로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독성의 용기를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상당한 광고 효과와 마케팅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며 각 업체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다고 한다.

생산제품이 천연식품첨가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장의 청결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며 “조업 전에 항상 전 직원이 청소부터 실시한다.”라고 강조한 회사측의 말처럼 공장은 아주 청결하고 깨끗했다.

현재 설비 시설은 지속적 공정 개선작업을 통해 보완중이고, 신기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기존 시장을 새로이 개척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 연구과정보다는 앞으로의 영업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기술력에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승산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영업팀의 권오욱 과장은 “우리켄테크의 영업 전략은 대량생산에 의한 대량공급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을 알아주는 소수의 업체와의 지속적 기술검증을 통한 안정적 제품 생산에 있습니다.”라며 영업의 안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우리켄테크의 경영목표는 신기술개발과 투자



에는 과감하게, 영업은 안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영업팀의 김유석 주임은 “funding 과정에서 그다지 어려운 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입증된 기술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니,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무독성 수지, 천연첨가제 사용을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는 회사는 우리켄테크 이외에도 다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업체들이 충분한 기술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시장전략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켄테크는 특허 출원과 한국식품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일본화학품검사협회 등 각종 연구소로부터 검증받은 무독성 소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켄테크의 특허 관련 사항은 무독성 플라스틱에 관해 세계 특허(PCT)출원, 국내특허 4건 보유, 9권 출원 중, 즉석 식품용기 관련 일본 신용신안 등록, 국내 실용실안을 4건 출원 중에 있다.

기술팀의 이문연 주임은 “초기에는 거의 매일 밤을 세우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無에서 有를 창조한 것

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기술 개발이 쉬운 것은 아니니까요.”라며 우리켄테크의 제품은 사람이 먹어도 해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며 기술력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다.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기술로는 향기 플라스틱(TECHPOL-aroma)이 있다. “향기 플라스틱은 향기의 지속성과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우리켄테크 기술은 향기재료를 가공(사출, Blow)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입니다. 성형시 내열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며 샘플을 보여 주었다.

향기 플라스틱은 기존의 성형업체들도 기존 설비를 그대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은 원료 파우더를 성형가공업체로 공급



▲ 우리켄테크(주) 연구소 내 신기술 연구품



▲ 우리캠테크(주) 연구소 연구원

하는데 머무르고 있지만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면 직접 성형 가공분야로의 진출도 조심스럽게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창업초기라 종업원들의 처우가 부족한 편이라며 공장에 기숙사 및 식당 등의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제2공장도 건설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캠테크는 플라스틱 부문의 사업뿐만 아니라 사향 대체 물질, 무독성 살충제, 마이크로 캡슐 등의 정밀 화학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캠테크의 임직원들은, 신생업체가 시행착오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모두가 의욕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21세기는 무한 경쟁 사회이다. 어떤 기업에도 보장된 미래란 있을 수 없다. 각 회사마다 시장에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캠테크의 무기는 기술력이다.

우리캠테크는 신기술로 출발했고 현재도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높고 단단한 시장의 벽을 신생업체가 단순한 영업 전략으로 뚫기에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관건은 기술력이며, 기술력의 뒷받침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캠테크는 기술력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여타 업체와 차이가 있다.

신기술로 승부하는 우리캠테크의 선전을 기대해본다. ☺